

2. 조계산지역의 중창불사(重創佛事)

1) 송광사의 중창불사

왜군이 순천 동쪽의 해구를 본거지로 삼아 진지를 설치하고 산간 야촌을 돌아다니면서 인마를 살상하고 각 처에 불을 질러 국토는 거의 재만 남고 폐허가 되었다. 이때 송광사는 다행히 수각(水閣), 임경당(臨鏡堂), 보조암(普照庵), 천자암(天子庵)만 불타고 사찰은 건재하였다.

정유재란으로 불타버린 사찰을 1601년(선조 34) 봄에 응선화상(應禪和尚)이 궤기하여 먼저 사재를 털어내고 화사(化土)를 선정하여 복구를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송광사 제4차 중창불사였다. 수각은 희장(熙藏), 임경당은 혜장(惠藏), 보조암은 영기(靈機), 천자암은 청운비구(靑雲比丘) 등이 불사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리하여 1601년 봄에는 수각을, 1604년에 천자암을, 1606년 봄에 보조암을, 1608년에는 임경당을 차례로 중건하여 1609년(광해군 1) 6월에 준공하였다. 임경당·보조암의 목수는 학정(學正), 별좌(別座)는 해천비구(海天比丘)였다. 왜란으로 사찰이 피폐해지고 승려들이 환속하는 지경에 이르자, 사원경제는 날로 어려워졌다. 전각의 지붕 변화 등 복구불사가 더욱 심각하자 1609년 가을 지리산의 부휴대사(浮休大師)를 재삼 요청하여 모시고 불사를 도모하였다. 부휴선사는 문도(門徒) 각성(覺性) 등 400여 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화사(化土)는 조전(祖殿) 수장(修莊)에 도수(道修), 동행랑(東行廊)에 신희(信熙), 천왕문(天王門)에 지경(智罔), 개와(蓋瓦)에 설수(雪修)·성엄(性嚴) 등이었으며 조전 천왕문의 목수는 학정, 별좌는 해천비구 등이었다. 이와 같이 각각 책임을 맡겨 날날이 보수하였다. 이해 겨울에는 거느리고 온 대중과 상주하는 대중 600여 명이 강당에 모여서 법연을 크게 베풀고 전경과 강경으로써 동안거(冬安居)를 마치니 이것이 곧 낙성의 경찬법회(慶讚法會)였다.

1842년(헌종 8) 3월 2일 밤에 서북쪽에 있는 낙하당(落霞堂: 현재의 도성당)에서 불길의 일어나 대웅전을 비롯한 거의 모든 건물이 전소되었다. 이에 기봉장오(奇峯藏旰: 1776~1853)·용운처익(龍雲處益: 1813~1888) 두 화상(和尚)이 이듬해부터 1856년(철종 7)까지 대대적인 제5차 중창불사를¹⁾ 하여 사찰 면모가 일신되었다.

제5차 중창불사 재원은 사찰의 자체 부담과 관부의 재정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송광사가 관부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은 숙종의 후궁인 육상궁(毓祥宮)의 원당(願堂)이란 점과 관부의 울목봉산(栗木封山)으로 지정되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송광사 제5차 중창불사에 따른 일련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42년 3월 2일 대화재로 2,152칸의 건물이 소실되어 본관 및 영문(營門)에 보고하여 사세탕감(寺稅蕩減)을 약속받았다. 4월 8일 기봉·용운 스님이 상경하여 영상 조인영을 접견하고 중창지원을 청원하여 보고장을 제출하였다. 9월 17일 조정으로부터 중창지원의 논의가 하달되었다. 10월 영문에서 비변사와 예조에 각기 공명첩 1,000장과 춘조 팔도권선문 발급을 청원, 수사와 본관에 별채 등장을 제출하여 별목을 시작하고 영문으로 목재 운송을 위한 부역동원을 청원하였다.

1843년 2월 12일 비변사로부터 공명첩 500장, 승첩 200장이, 예조로부터 춘조 팔도권선문이 발

1) 서치상·김순일, 「송광사 第五重創工事に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권 1호, 1990.

급되었다. 3월 19일 공명첩 가격을 책정하여 본도 내에 발매하고 화사를 선임하여 권선시주전 화입(勸善施主錢化入)을 시작했다. 이어 대웅전을 비롯한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대웅전·명부전·응향각·법왕문·종각·서방장·관음로전이 중건되었다. 1844년에는 도성당·보제당·문수전이 중건되었고, 1845년에 불량고·상고·각고가 중건되었다. 1856년에는 대장전·해탈문·삼일암이 중건되었다.

이러한 불사 끝에 완공된 건물은 총 17동에 이른다. 이들 건물은 대부분 옛터에 재건되어 절의 서쪽에 세워졌으나, 이후 수차에 걸쳐 훼손과 재건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당시의 모습을 보이는 건물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송광사 제5차 중창불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관부로부터 발급된 공명첩의 발매전과 팔도권선문에 의한 시주전으로 충당되었다. 이외에도 사찰 자체로 마련된 시주전이 있었으나 관부로부터 마련된 것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화재(化財)일람표에서 보여주듯이 총액 2만 1,641냥(兩) 3전(錢) 3분(分) 중에서 공명첩 가격이 1만 419냥 3전 6분이며, 권선시주전이 4,998냥 8전으로 전체의 3/4을 차지하여 공명첩가와 시주전에 의존하여 중창불사가 이루어졌다.

다음의 권선시주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용운대사가 가장 많은 시주전을 납입하였다.

화제일람표

항 목	출 처	금 액
공명첩가	본도 53읍 발매	10,419냥 3전 6분
운재부역방전(運材赴役防錢)	본도 28읍 사찰	320냥
권대전(勸袋錢)	인근 18읍민	1,616냥 3전 3분
권선시주전	팔도화입	4,998냥 8전
개인시주전	임응환(林應煥), 최신묵(崔信默), 최한풍(崔漢豊)	1,100냥
낙하당방답기(落霞堂房沓價)	전답방매	232냥
기타 수입		2,141냥 8전 4분
계		21,641냥 3전 3분

권선시주전화입 내용

회주명	금 액	회주명	금 액
용운대사	2,592냥 4전 9분	문월대사	81냥 4전 8분
원응대사	325냥 2전 9분	계흥동지	96냥 8전 1분
기봉대사	145냥	미찬동지	147냥 5전
섭암대사	427냥 2전	의영대사	140냥
운담대사	250냥 3전 7분	비구니도덕	351냥 4전 5분
면담대사	181냥 8전 6분	청봉대사	113냥
응봉대사	74냥 9전	추담대사	71냥 4전 5분